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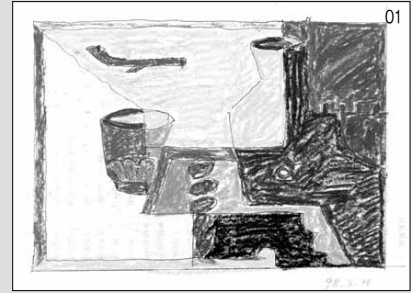
나의 그림 그리기

My Picture's sto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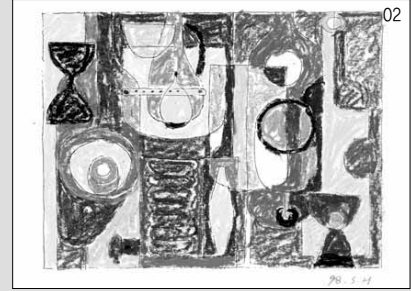
김석환 / 터·울 건축사사무소
by Kim Suk-hwan

다시 회화전을 준비하자니 10년 전 1회를 준비할 때가 떠오른다. 그 때는 지금보다 마음의 부담이 더 컸었다. 처음 해보는 전시에 소요되는 비용과 번거로움, 그리고 나의 작품을 많은 사람 앞에 내어 놓는다는 부담감도 많았다. 그래서 전시를 끝내고 다시는 이 같은 일을 벌이지 말아야겠다고 결심까지 했었다.

하지만 그 이후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림을 그려오다 보니 그림이 쌓이고, 그림에 대한 생각이나 그림 자체가 변화된 면도 생겼다. 또 그동안 일 년에 두 번 정도 내가 속한 한국풍 경화회와 건축가미술전 등 정기적인 단체전에 줄곧 참가해오다보니 그에 출품한 그림만도 족히 한자리에 모아놓을 만한 숫자가 되었다. 그리고 그런 때 내 작품 앞에서 스스로 갖게 되던 감회를 다 모아놓고 많은 사람과 함께 느낌을 나누며 정리하고 싶은 생각도 들어서 다시 전시를 열게 되었다.



01



02



03



04



05

01_ 금비녀가 있는 정물 02_ 호리병과 피리가 있는 정물
03_ 밤섬 풍경 04_ 불암산의 여름 05_ 용문산의 보이는 봄날 풍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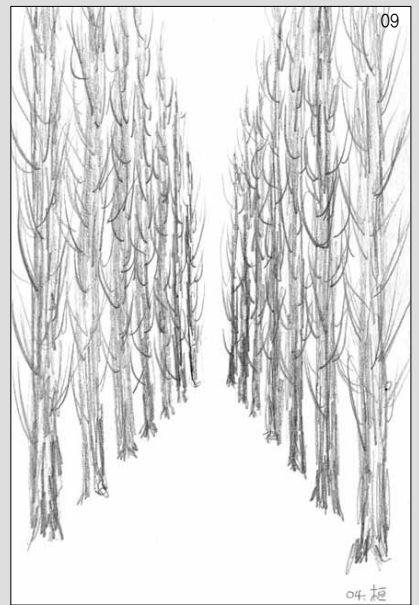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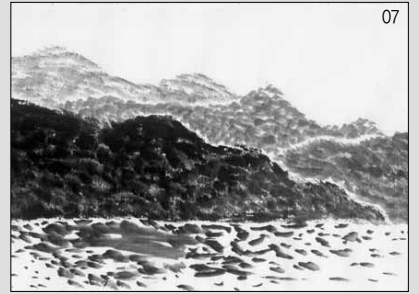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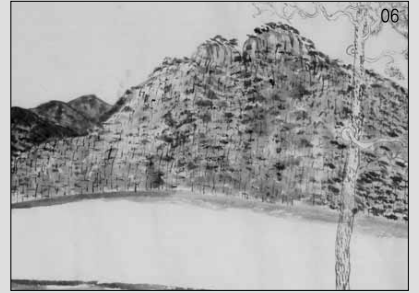
첫 번 개인전 때, 그림은 그림으로 느낌이 전해지는 것이라고 단정하면서 나의 그림에 대해 내 생각대로 교감되고 있는지 궁금했었다. 그리고 부족하나마 내가 소중하다고 여기는 의미가 진솔히 전해질 것을 바랐다. 작품들 가운데는 수채화, 유화가 섞여 있었는데, 질료 속성에 구속을 덜 받는 수채화에서 나의 감각이 더 잘 살아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 때는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지 오래되지 않았을 무렵이라 별로 경험이 없었던 유화 기법을 익히고 싶어서 유화 제작에 나름대로 더 많은 시간과 공을 들였다. 하지만 그 그림들에 대해 나의 느낌대로 표출되지 못한 불만이 있었고, 그 이유를 나름대로 점검해 보았다. 먼저 전시가 임박했을 때 그림을 전시장에 내놓는 것을 의식하여 조금씩 손질한 것이 현장에서 그릴 때 가졌던 감각을 손상한 결과로 나타나 못내 아쉬움이 남았다. 그때에도 현장감을 중시하긴 마찬가지였으나 나의 그림에 대한 확신이 부족한 상태였기 때문에 선볼리 손을 대었던 것 같다. 그러나 전시 후 그 그림들에서 진솔한 느낌을 잃어버린 것이 매우 큰 손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 그 이후부터는 좀 더 나 자신의 감정에 충실한 그림을 그려야겠다고 생각하고 캔버스 앞에 선다. 나는 첫 번째 개인전을 통해 그것을 확실히 의식하게 되었다. 내가 그리고 싶은 그림은 감성을 지닌 존재라서 대상을 대할 때 내면에 일어나는 감흥을 진솔하게 담는 것이다.

그림을 그리러 갈 때마다 나는 그 날 어떤 풍경과 만날지 설렌다. 혼자 나갈 때도 있지만, 회원들과 함께 사생에 나가는 날이면 현장에 도착해 차에서 내리자마자 그 충동에 의해 바빠 주변을 살피게 된다. 그리고 연기 퍼지듯 이곳저곳으로 흩어져 각자 좋아하는 대상을 앞에 두고 자리를 잡는다. 그날의 사생지 조건과 기우는 모두 감수한 채, 화구를 펼쳐고 사생을 시작하는 순간부터 그림을 완성할 시간동안은 거의 무아지경이 된다. 땀벌이나 추운 날씨에 그림을 그리지 않고 그 곳에 그냥 있으려면 잠시도 머물기 어려울 것이다. 무료함이 더 큰 고통일 수 있다. 하지만 그

림을 그릴 때는 늘 시위를 떠난 화살이 날아가듯 시간은 짧게만 느껴진다. 화구를 펼쳐 구도의 대략을 잡고 나서부터 본격적인 사생을 시작하게 되면, 대상으로부터 발하고 느낀 느낌을 원근과 구도에 맞게 표현될 수 있는 적절한 색을 찾기 위해 애를 쓰거나, 광선이 달라져 인상이 변하기 전에 빨리 화면에 옮기기 위해 그 물감을 서둘러 붓으로 칠할 때, 또 그림을 그려가다가 순간순간 명상에 잠기듯 바라보는 사이 시간은 금세 흘러버리곤 한다.

그처럼 감흥의 순간을 빠르게 옮기는 과정에서 화면에 의도한 선명한 감각이 나타날 때 기분 좋게 느껴지지만, 그려진 그림 앞에 서면 늘 또 다른 고민을 하게 된다. 감각적 묘사에 가치를 두고 있지만 그림이 완성되어갈 때면 묘사의 충실도에 대해서도 욕심이 생기고 그를 위에 더 손질을 하고 싶은 충동이 생긴다. 그러나 완성도를 의식하여 손질을 하다 보면 좋았던 것까지 잃게 될 염려가 있고 손질이 가해질수록 더 착착해져서 야외 사생에서의 감각을 얻는데 실패할 수도 있다는 경험 때문에 그 자체로 만족하기로 한다. 그림을 그려가다가 어떤 순간 더 손질을 가하면 나의 감각과 다르게 변해버릴 염려가 느껴질 때 결단을 내려 붓질을 멈춘다. 동시에 부족한 아쉬움도 느끼지만 경험상 그 때가 멈출 용기를 발휘해야 할 시점이라는 것을 새삼 의식한다. 1회전 무렵에는 그런 갈등 속에서 손질을 해 그림을 잃은 것도 많았다. 하지만 그 이후에는 갈등이 생기더라도 단숨에 그려진 그림 위에 아예 손을 대지 않을 결심을 했다. 그리고 그것이 나의 화풍이라고 여기고 있다.

나는 사생지에서 만난 구경꾼들로부터 그림 그리기에 대해 선망하는 말을 가끔 듣는다. 그러나 내가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는 이유는 사물을 인식하는 힘을 기를 수 있다는 생각과 직업인 건축에서처럼 현실적 관념에 구애받지 않고 자아를 자유롭게 표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의 그림 그리기는 문인이 글로 묘사하듯이 붓질을 통해 그



06_ 낙동강과 변산 07_ 아침햇살에 빛나는 물결
08_ 강상 09_ 기루수-3

느낌을 화면에 표현하는 행위이다. 대상을 보고 생긴 감성이 갖가지 언어로 표출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나는 건축가로서 생각을 도면으로 전달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고 그린다는 것에 익숙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처음에는 단지 조형 언어의 소양을 넓힐 생각을 갖고 그림 그리기를 시작했다. 그것은 다분히 화가이자 건축가였던 르 코르뷔제를 의식해서 시작한 일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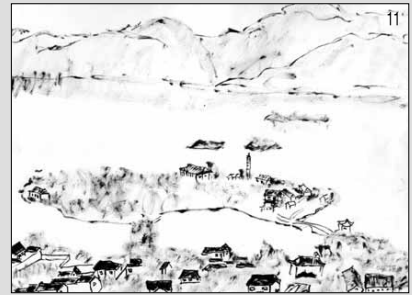
누구나 자신의 생각과 스스로의 의미가 유쾌하지 않으면 즐겁게 또는 치열하게 할 수 없을 것이다. 처음에는 그림에 대한 신념이나 나의 그림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정말 좋은 그림이 되었는지 잘 알 수 없었다. 그냥 휴일에 야외에 가서 그리는데 자체가 정서적 측면에서 유익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전에 미처 깨닫지 못했던 회화의 진정한 힘에 대한 신념 같은 것이 생겼다. 화면 안에 공간이 담기고 또한 사물의 생명력이 담겨진다는 의미를 새롭게 체험하고부터 나는 그림 그리기에 대해 전혀 다른 차원의 의미를 갖게 되었고, 가치를 두고 작업을 하게 되었다.

나는 건축이 위대한 일이라는 신념을 갖고 있다. 그러나 자연으로부터 표출되는 감각이 인간이 만든 것에서 발하는 것보다 확실히 더 근원적이고 위대하다는 생각도 갖게 되었다. 화면 안에는 공간의 무궁한 감각과 생명력 등 삼라만상의 기운을 담을 수 있다. 그리고 나는 대상으로부터 끊임없이 전해오는 생명의 감동을 느끼고 있다. 그것은 우주 존재 자체의 생명력과 경이로움을 수반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건축의 힘도 결국 자연의 힘과 연관되어 형성되는 것이라는 생각에 이르렀다. 건축은 기하학적이고 구체적이며, 사람에게 의해 만들어진 것이며, 그것은 우주위에 기술적으로 생성된 특수한 양상을 띠고 있는 사물이다. 그리고 인공적인 사물은 엄밀한 목표를 추구할 수 있고 그에 대한 가치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인간에게는 저변의 인식이 더욱 중요하다 할 수 있다. 내가 그림 그리기에 의의를 두는 것은 자연과의 교감이 인간의 본성적인 것

이며, 우주 저변의 총체적 인식이기 때문이다. 자연으로부터 표출되는 질서와 생명력은 인위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묘사할 수 있을 뿐이다. 나의 그림 그리기는 사물로부터 발생한 감성을 붓으로 물감을 찍어 화면에 표현한 것이다. 그 과정에서 나에게 중요한 것은 사물의 진실한 감각에 대한 감동의 기록이며, 그 때문에 나는 현장에서만 풍경화를 그릴 수 있다. 그리고 시시각각 변하는 그 사물의 생생한 감각을 기록하기 위해, 그 분위기가 변하기 전에 빠르게 묘사하려 한다. 그러다 보니 사생지에서 따로 식사할 시간을 갖지 못한 채 한손에 김밥을 들고 먹으며 그리게 된다. 그러나 아무리 그림 그리는 것이 본분의 일이지만, 점심시간에 함께 모여 화우의 친분을 나눌 기회에 동참하지 않은 것에 미안한 마음도 있었다.

화가의 붓질에는 그 인상을 기록하는 이의 감정이나 진솔함의 여부가 드러난다. 감동에 사로잡혀 그 인상을 표출하려 애쓰는 가운데 단 몇 번의 붓질로 사물의 인상과 힘이 담겨질 때가 있다. 가장 정직하고 충실한 감정이야말로 그리는 행위로부터 얻어질 수 있는 최상의 획득이라고 생각한다. 경험상으로 볼 때 그것은 시간과 장소, 건강, 의지가 일치해야 한다. 사생에 임하기까지 또 다른 결단을 해야 한다. 정말 귀찮게 느껴질 때가 있고 가기 싫을 때도 있다. 시간, 차량 이동시의 정체, 기후 조건 등 사생과 더불어 발생하는 피곤한 일들을 감내해야 한다. 그러나 막상 사생에 임하면 어느 순간 화면이 완성되어진 기쁨을 갖게 된다.

집에 오면 아무리 피곤하더라도 그림부터 꺼내 액자에 넣거나 아니면 벽에 세워 두고 보게 된다. 클립 지국 등 손질을 해야 할 부분도 점검하고, 현장을 떠나 그 자체의 작품으로써 어떤지에 대해 생각하며 그림을 보면서 밥을 먹기도 한다. 다시 화구를 정리하는데 그런저런 시간이 흘러가며 피로를 느낀다. 휴일에 더 고된 중노동을 한 셈이다. 그 모든 과정이 수반되는 그림 그리기



10. 돌담과 숲 11. 산하 12. 석조전 13. 줄정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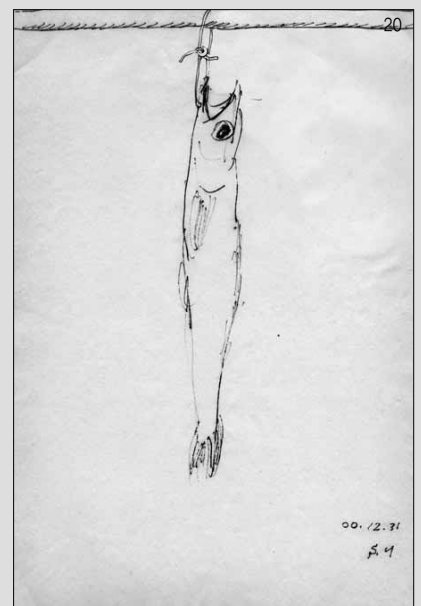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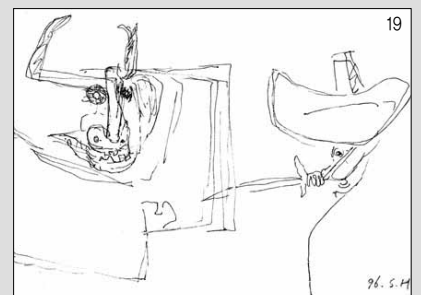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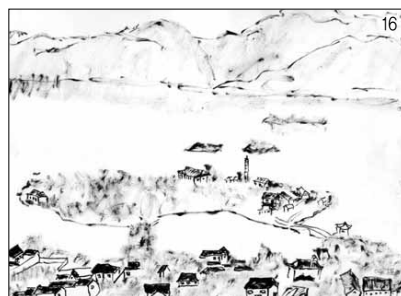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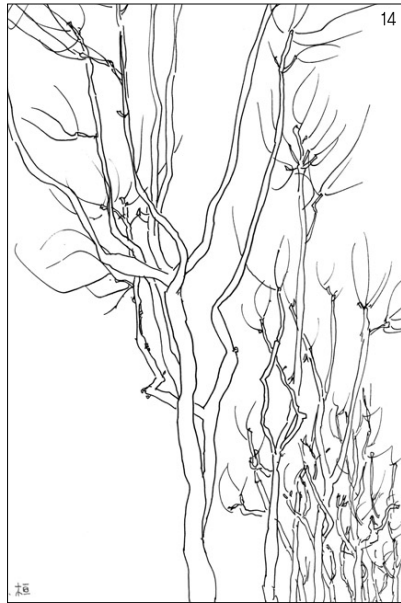
는 정말 많은 에너지를 소모시키는 일이다. 그래서 때로는 그림을 일부러 안보이게 치워 둘 때도 있다.

누구나 산에 가고 강가에 가서 정서적 충만감을 느낄 수 있다. 그것을 그리지 않았으면 그 순간의 느낌으로 지나치고 말 일이지만 나는 그 느낌을 화폭에 담아 왔고 그 체험을 주변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게 되었다. 그에 감사하게 생각한다. 나는 야외에서 생명력을 느끼고 표현하려는 충동과 의지가 담긴 그림을 소중히 생각한다. 흘러간 세월과 더불어 조금 더 가까워진 그림 그리기의 길에서 그 소중함을 알게 되었다. 그것은 기계로 만들 수 없는 인간 감정의 산물이며, 인간 본성의 바탕을 이루게 하는 대상과 대화하는 일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상은 풍경 그리기를 진부한 일로 여기고 있다. 그래서 이런 힘겨움이 수반되는 전사를 여는 것은 화기들에게 대중과 동떨어진 고독한 다른 일상을 보여주는 장이 되기도 할 것이다.

감상묘현(感想描現)

천지에 불기운이 충만하다. 차가움에 갇혀 있던 생명이 봄벌을 쫓면 산천초목에 감도는 새 생명의 기운이 경이롭게 약동한다. 그 느낌은 죽음처럼 무거운 침묵의 계절을 지나온 끝에 마주 대하는 것이기에 더욱 감동스럽게 느껴진다. 하지만 새롭게 마른가지에서 움터 자라난 초록 잎사귀는 곧 우거져 그늘을 만들고 열매를 맺고 단풍이 되어 허전함을 불러일으킨다.

생명체인 나의 몸이 시시각각 변하는 그 자연에 감응되고 마음에 감상이 일어난다. 그런데 그 감상은 기록해 두지 않으면 시간이 흐름속에 잊혀지고 만다. 나의 그림은 언어로 시를 짓듯 나의 감상을 화폭에 기록한 것이다. 나는 그것을 묘사해 기록하면서 그것을 붙잡아 두는 기쁨을 느낀다. ㉮



14_ 가로수-1 15_ 경복궁의 봄날 풍경 16_ 산하

17_ 이른봄의 북한 강변 18_ 장인 19_ 투우사 20_ 황태